

電力機資材 對日 진출 교두보 마련 - 東京·關西·中部電力서 구매 상담 -

일 본전력회사의 엔가에 따른 해외 기자재 조달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韓·日 전력업계간의 정보 교류를 위해 지난 9월 17일부터 23일까지 일본의 東京·關西·中部電力에 파견된 “대일전력기자재 수출 촉진단”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돌아왔다.

振興會 이희중 회장을 단장으로 현대 중공업, LG산전, 대성전선 등 국내 메이커 22개사와 통산부, 전선공업 협동조합, 한국전력공사, KOTRA 관계자 등 총 39명으로 구성된 이번 대일 전력기자재 수출 촉진단은 각 기자재별 국제조달팀, 기술팀과 개별적으로 상담은 물론 각 전력회사의 개요와 향후 구매계획 등의 설명회를 통해 한국산 기자재의 對日 직수출 가능성을 모색했다.

국내업체 관계자들은 일본전력 수요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도쿄전력측이 한국으로부터 최초로 미션단을 초청, 상담에 응한 점을 중시해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한 카달로그, 기술사양서 등을 보여주면서 회사개요, 생산제품별 특징, 사양, 국내판매실적, 수출실적 등을 설명하고 도쿄전력이 국내업체가 생산하고 있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직접 또는 간

접(도쿄전력 등록업체)으로 조달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특히 이번 상담회는 국내 22개 참가업체의 규모, 생산품목을 고려해 ▲차단기, 개폐기, 변압기 그룹 ▲전선, 케이블 6kV미만 그룹 ▲화력, 원자력 등 原電그룹 등 4개분야로 나눠 일본전력회사 구매 및 기술담당자가 배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도쿄전력측은 국내업체와의 상담시 국내업체 생산제품과 도쿄전력이 조달하고 있는 제품(부품)과의 차이를 비교적 소상하게 설명했으며 한국산 전력기자재가 도쿄전력이 규정해 놓은 기술사양, 품질, 성능 등과 부합한 경우 도쿄전력에 직접 납품할 것인지 또는 일본의 기존등록업체(메이커)를 통해서 납품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상담에 응하는 등 한국산 기자재의 조달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

오사카에 있는 關西電力은 사전에 입수한 한국기업의 개요와 생산제품특성을 기준으로 국내업체를 6개 그룹으로 구분, 개별상담을 실시했다. 상담은 지상배전, 지중배전, 시스템, 송전, 변전 및 화력·원자력 등 6개 부분으로 나눠 개최돼 총 33건의 개별상담이

이뤄졌다. 상담진행은 판서전력측의 각 부분별 구매담당자와 구매실 국제구매담당자가 배석해 한국업체의 회사현황과 제품설명을 들은 후 판서전력측의 의견, 요구사항 등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판서전력의 현황 및 거래기준, 구매방침, 계약절차 등의 구매절차에 대해 상세한 안내를 받았으며 특히 관심있는 품목의 경우 단시일내에 재상담을 요청하는 적극적인 자세도 보여 국내기업의 진출가능성을 한층 높게 했다.

나고야에 있는 중부전력의 경우 지난해부터 對韓 전력기자재 구매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보여왔다. 특히 금년 4월에 자체구매단을 한국으로 파견해 국내업체와 상담한 바 있는데 최근에는 몇몇 국내업체와 구체적인 상담결실을 눈앞에 두고 있다. 중부전력은 국내전력기자재 업체의 대일진출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한국기업으로부터의 자재조달에 관심이 높다.

이번 상담회에서는 중부전력의 개요, 발전설비건설계획과 향후 구매조달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었으며 나아가 한국업체의 조달을 위한 업체등록, 규격심사 등의 절차, 그리고 각 생산제품별로 4그룹으로 나누어 상담이 이루어졌다.

일본 민간전력 10개사는 최근 진전되고 있는 엔고에 대응해 사내에 '수입확대위원회'를 설치하고 독자적으로 기자재조달 시장조

사단을 해외에 파견하는 등 해외조달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상담회 개최를 통해 입수한 도쿄전력에 등록된 일본메이커 현황, 도쿄전력의 품목별 기술사양, 해외 기자재에 대한 사내 검사제도, 해외조달절차 등을 활용

하고 향후 동종메이커간의 기술 및 정보 교류를 보다 활성화할 경우 현재 전선, 철탑, 변압기 등 일부 품목에 국한되어 있는 전력기자재의 對日 수출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臺灣 전기단체와 업무협약 체결

— 대만구전기전자공업동업공회 —

한 국전기공업진흥회는 지난 '94. 11. 22 대만의 대만구 전기전자공업동업공회를 방문하여 양 단체간 정보자료 교환과 중전업계 인적교류 및 국제전 등에 상호 협력할 것을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양 단체간 내부 절차를 거쳐 이번에 공식적으로 업무협조 약정을 체결되었다. 이번 업무협조 약정 체결에 따라 양국간 교류가 활발해지고 상호친목과 우의를 통한 협력관계가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대만구 전기전자공업동업공회는 대만 전기전자를 대표하는 제조업 전문단체로서 4,300개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사의 '93년말 총 수출실적은 미화 230억불이다. 주요 활동업무는 회원사의 공동 이익추구를 위하여 기술개발, 국제협력 강화 및 수출진흥사업, 홍보 출판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기전자 관련 3개 전시회를 대만무역진흥공사(CETRA)와 같이 후원하고 있다.

電機工業發展 民間協議會 開催

— 주요사업 보고 및 협의 —

電 機工業 전반에 걸친 민간자율의 범 업계적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전기공업 발전에 관한 대정부 건의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한 電機工業發展 民間協議會(委員長:李喜鍾)가 지난 11월 14일 무역 클럽에서 전기공업발

전 민간협의회 위원과 정부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개최된 협의회에서는 '96 전기공업 시책 방향 협의와 "21세기를 향한 중전기산업의 발전 전략" 연구결과 보고, "중전기개발시협설비 건설 추진 현황",

“중전기 기술개발기금 조성사업 추진 현황” 및 “대일 중전기 수출촉진단 파견 결과”와 “’96 서울 국제종합 전기기기전 추진 현황” 등에 대한 보고 및 토의가 있었다.

한편 전기공업발전 민간협의회는 지난 ’86년부터 민간자율의 협의체로 산업정책에 관한 민간부문의

의 각종 산업, 기술정보의 원활한 교류를 도모하고 자율적인 조사, 연구활동을 활성화하여 산업정책 결정에 관한 정부와 민간부문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각 공업국별로 구성 운영된 협의체 기능에 따라 5기에 걸쳐 10년째 운영되고 있다.

대일 전력기자재 수출촉진단 방문 결과보고서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진흥회에서는 이번 발간된 자료가 우리 업계의 대일 진출을 위한 사전 정보자료로서 많은 활용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대일 진출의 토대가 될 각종 자료를 수시로 입수·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주요 전력회사의 구매담당 임원을 초청, 국내 중전기 제품의 수준과 생산동향 등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짐으로써 본격적인 대일 수출의 계기도 마련할 계획이다.

「日本 電力産業 動向」 발간

— 전력기자재 구매절차 등 수록 —

일본 전력회사의 엔고에 따른 해외 기자재 조달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韓·日 전력업계간 정보 교류를 위해 지난 9월 17일부터 23일까지 일본의 東京·關西·中部電力에 파견된 「대일 전력기자재 수출촉진단」이 현지 전력회사와의 수출 상담회 개최 및 전력산업동향 파악 등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에 한국전기공업진흥회에서는 이번 파견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일본의 전력산업현황과 전력기자재 구매절차 등을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단행본의 「日本 電力産業 動向」을 발간하였다.

이번 발간된 일본 전력산업 동향에는 일본의 전력수급 동향과 전력설비 동향은 물론 일본 전력회사의 구매 절차 및 등록과 형식 승인제도, 전력회사별 상담창구 및 연락처 등을 수록하고 있으며, 부록으로 일본 전기공업 현황 및

「전기공업」 PC통신 서비스 개시

— 「KOEMA」정보 제공 —

韓國電機工業振興會는 유관 기관과의 정보 공유 및 전기업계와 전기공업 관련 종사자에 대한 정보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한국전력공사 PC 통신 “KIS”를 통하여 「KOEMA」정보망을 개설·운영한다.

「KOEMA」정보망에서는 진흥회 조직과 기능, 회원현황 등 진흥회 일반현황 소개 및 전기공업과 관련한 국내의 전기공업 동향, 중전기 업계의 기술개발 및 신제품 개발동향, 정부시책, 통계 등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특히, 그동안 “NEWS LETTER

전기공업”, “전기공업”, “전기공업 통계” 등 각종 간행물을 통하여 업계에 제공하던 해외 전기공업 동향과 기술·품질관리 동향 등의 다양한 정보를 수시로 발췌 입력하여 PC통신을 통하여 제공함으로써 정보 보급 기능 강화와 신속·다양한 정보 습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진흥회에서는 이번 정보제공 사업을 시작으로 앞으로 더욱 폭넓고 깊이있는 국내의 정보를 수집 전파함으로써 회원사 및 전기업계의 세계화, 정보화 기능을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東南亞 電機工業 市場動向」 발간

— 말레이시아 등 5개국 전기공업 동향 —

최 근 동남아지역은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공업화가 크게 진전됨에 따라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대규모 발전시설건설 등으로 중전기기의 새로운 수출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한국전기공업진흥회에서는 동남아지역 5개국에 대한 우리 중전업계의 시장진출의 참고가 될 국가개황, 전력산업동향, 전기공업동향 등을 조사 분석하여 『서남아 전기공업 시장동향』에 이어 제

2집으로 『동남아 전기공업 시장동향』을 발간하였다.

이번 발간된 자료에는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 5개국의 발전기, 전동기, 변압기, 변환장치, 개폐기, 차단기, 배전제어장치, 전선 등 주요 중전기기 품목의 수요동향과 경쟁동향은 물론 입찰기관과 품목별 수입업체 리스트 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어 이 지역 진출을 시도하고 있는 관련업체에 유용한 자료로 이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東·西南亞 輸出促進團

1억9천만 \$ 수출상담

— 인도 등 3개국 4개지역에서 상담 —

한 국전기공업진흥회가 한국 전력공사 후원하에 파견한 동·서남아 수출촉진단이 지난 11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필리핀, 인도, 인도네시아 등 3개국 4개지역에서 현지 업체 241개사의 바이어와 수출 상담회를 개최하여 1억9천만 \$의 큰 상담성과를 거두고 돌아왔다.

이번 수출촉진단은 진흥회 任寅柱 상근부회장을 단장으로 한국전력

공사 관계자와 LG產電(株) 등 9

韓電 李宗勳 사장 초청 간담회 개최

— 한전 지원 사업 보고 및 건의 —

한 국전기공업진흥회는 지난 12월 12일 호텔 롯데월드(3층)에서 한국전력공사 李宗勳

개사에서 총 16명이 파견됐는데 이들 지역은 최근 고도 경제성장과 급속한 공업화 진전으로 대규모 전기설비 프로젝트 및 기자재 수요가 예상되고 있는 시점에서 파견되어 바이어들의 구매욕과 관심을 고조시켰다.

수출촉진단은 현지 업체와 수출상담을 통한 수출시장 확보 및 투자환경을 조사하는 외에도 각국의 전기관련기관 및 단체를 방문, 국가별 전원개발계획 및 중장기 전력기자재 수요를 파악하고 특히, 인도 전기전자공업협회(IEEMA)와는 업무협조 약정을 체결, 앞으로 양국간 전기공업발전을 위한 협력강화와 정보 및 기술교류가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한편, 진흥회는 앞으로도 수출 유망지역을 선정, 지속적으로 수출촉진단을 파견하여 중전업계의 국제화와 수출산업화를 촉진할 계획이며, 이번 인도전기전자공업협회와의 업무협약 체결과 함께 그동안 업무협조 약정을 체결한 각국의 단체와도 관계를 개선하고 교류도 적극 추진하여 해외업무를 더욱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사장을 초청, 업계와의 간담회를 가졌다.

업계, 단체, 연구기관 등에서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간담회는 그동안 한전에서 중전기기업계 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중전기기술개발기금 조성, 경인지역 소용량 단락시험설비 건설, 중소기업 기술지원팀의 해외 기술 연수 및 시장개척 지원 등 한전의 대업계 지원 사업 추진 현황 보고와 함께 중전기

생산자와 대 수요처간의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중전업계에서는 한전 지원 활동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은 감사패를 이종훈 사장께 전달하고 앞으로도 업계 발전을 위하여 한전에서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져줄 것을 건의했다.

에도 21.9% 늘어난 4천6백억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어 중전업계의 투자심리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같은 경기 전망에 따라 내년도 중전업계의 영업전망도 금년 전망치 17.5% 증가세 보다는 다소 낮아진 14.8% 증가한 7조3천억원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96 電機工業 경기 완만한 성장 전망

— 수출은 지속적 증가 예상 —

금년 세계 경기 회복세 및 엔고 등 대외 환경 호전과 내수경기 활황 등에 힘입어 경기 확장세가 절정에 이르렀던 전기공업의 '96년도 경기는 국내 경기가 다소 둔화되면서 완만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전기공업진흥회가 주요 중전기기업체 12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생산은 수출부문의 지속적인 호조에도 불구하고 내수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생산 증가율도 금년대비 약 4.1% 내외의 성장에 그칠 전망이다.

수출은 중국을 비롯한 동·서남아의 경제개발계획이 본격화 됨에 따라 이들 국가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데 힘입어 금년대비 18.7% 내외의 증가세가 예상된다.

금년들어 3천 7백억원의 투자실적을 보인 설비투자는 '96년도

'95 품질경영 우수업체 생산공장 견학

韓 國電機工業振興會는 대·중소기업간 기술협력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경영·품질관리 우수업체의 공장 견학을 통한 회원사의 경영 및 품질관리 향상과 정보교류 및 유대강화를 목적으로 지난 10월 25일부터 10월 27일까지 2박3일간 重電機器 생산공장과 첨단제조 설비 견학 행사를 실시했다. 중전기기업 임·직원 등 총 30여명으로 구성된 이번 방문단은 최첨단 시설과 자동화설비를 보유한 신아전기공업(주) 안산공장, 계양전기(주) 천안공장, 보국전기공업(주) 대구공장, 현대중공업(주) 울산공장과 현대

자동차(주) 울산공장을 견학하였다.

이번 견학은 대·중소기업 및 동종업체 기술자,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상호 의견 교환 및 정보교류를 함으로써 동업자의식을 통한 협력관계 구축을 더욱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특히 품질 및 경영혁신의 필요성 절감과 시장개방의 파고속에서 우리 중전업계의 현실을 진단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구상해 보는 매우 값지고 뜻있는契機가 되었다.